

전북도 '고향기부제' 도입 '눈길'

출향민 28만명 소득세 10% 기부시 374억원 추산

전북도의 재정악화를 완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향기부제'의 도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북연구원(원장 강현직)은 6일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정부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한 이슈브리핑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 효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고향기부제 도입방안 및 지방재정 유입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북도는 출향주민 189만

명 중 기부여부가 있는 사람(24.5%) 46만명, 이중 경제활동참여인구(61.1%)만 추산한 28만명이 자신의 소득세 10%에 해당하는 132,235원을 기부하면 약 374억원의 재정유입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란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또는 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에 기부금을 내면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이다.

일본의 고향세가 주로 지방세에서 소득공제를 하면서 대도시권의 세금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식인 반면, 고향기부제는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지방재정유입효과가 있으며 사실상 국세의 지방이전 효과가 있는 것이다.

앞서 고향기부제는 양성된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4차 전북도의회 본회의에서 발의한 '고향기부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전라북도의회 의장이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안하면서 최근 전국적 이슈로 부상했다.

전북연구원의 이번 이슈브리핑 결과는 고향기부제 도입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해 고향기부제 도입이 지방재정 악화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밝힌 전국 최초의 연구이다.

현재 전북연구원이 통계청자료를 기반으로 추정한 바에 따르면 출생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출향주민은 서울 345만명, 전남 235만명, 경북 280만명, 충남 215만명, 경남 197만

명, 전북 189만명 순으로 총 2,308만명에 이른다.

이번 결과는 전북연구원이 출향주민 중 전라북도의회 대국민 설문조사결과를 반영해 기부여부(24.5%)가 있는 경제활동참여인구(61.1%)가 소득세의 10%를 고향에 기부할 경우를 상정해 지방자치단체 재정유입 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연구책임 맡은 김동영 박사는 "고향기부제는 지방정부의 재정유입효과 외에도 특산품의 답례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지역활성화 모델창출이라는 제2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정부의 고향기부제 도입 필요성을 적극 주장했다.

/정영수기자



코끼리들의 먹방 6일 오후 파천 서울대공원 동물원에서 아시아코끼리가 먹이를 먹고 있다. 서울대공원엔 310종 약 3,600여 마리의 동물들이 있는데 이중 가장 많이 먹는 동물은 '아시아코끼리'로 하루 평균 102.3kg을 먹어 차운다.

새만금환경청, HAPs 비산배출 신고대상 확대

6개에서 20개로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조병욱)은 올해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시행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HAPs)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이 현행 6개(인유정제처리업, 제철업 등)에서 20개(고무제품·플라스틱·위험물품 보관업 등 추가)로 확대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저농도라도 장기 간 노출·섭취시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카드뮴 납 등 특

정대기유해물질 35종과 입자상물질, 불루엔 등 8종을 유해대기오염물질(43종)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신고대상 20개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 시설 관리계획서 등이 수록된 신고서를 환경청에 제출(신규 공장 : 가동개시 전, 기존공장 : 6월 30일까지)해야 한다. 새만금환경청은 전북지역 유해대기오염물질 적용대상 사업장 수는 95개소로 파악하고 있다.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는 비산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기준을 도입하여 배

출되는 유해대기오염물질(HAPs)을 최소화함으로써 깨끗하고 안전한 대기환경을 지키기 위해 도입했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결과, 전국 대기유해오염물질 배출량은 연간 약 5만940톤 정도인데, 이중 굴뚝을 통해 방출 시설을 거치는 배출량은 36%(18,471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새만금환경청은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7일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전북대 공대 8호관)에서 신고대상사업장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유해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 시설 관리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영재 기자

새벽시간 차량털이 가출 청소년 검거

새벽시간 상가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군산경찰서는 6일 음식점과 택시 등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이모(16)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4일 오전 2시 50분경 군산시 산북동 A(45)씨의 음식점에 침입해 금고에서 현금 13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군산지역 상가와 차량에서 총 33회에 걸쳐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집을 나와 생활하던 이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문을 잠그지 않은 상점과 차량권을 골라 금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안진수기자

높은 이자 미끼로 돈만 받아 행진 30대 지역형

전주지법 형사2단독(강두레 부장판사)은 6일 높은 이자를 미끼로 지인을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모(36)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3~4%를 매달 초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3차례에 걸쳐 4200만원을 받아 행진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상당한데도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종우 기자

전주 호동골 생태놀이터 만든다

시, 쓰레기매립부지 활용 휴식공간 제공

전주시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맘껏 뛰어놀 수 있는 놀이공간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전주시는 호동골 쓰레기 매립부지를 활용해 도시의 어린이에게는 자연을 이용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생태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생태놀이터 조성 예정지는 과거 쓰레기 매립부지였던 호동골로, 이곳은 현재 유희토지에 꽃씨를 뿌려 계절별 아름다운 경관을 연출하고 꽃과 나비 등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땅으로 재탄생하면서 어린이 등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다.

또한 주변 이중호수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수변 자연 목방산의 건강하고 다양한 산림자원, 그리고 사계절 꽃을 생산하는 시립요양장

과 근접해있어 자연 생태 공간 조성이 가능한 최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달 5억원의 사업비와 면적 4000㎡ 규모의 생태놀이터 조성계획을 세워, 환경부의 2017년도 생태휴식공간 확충사업의 일환인 생태놀이터 '아이프락(아이들이 노는 자연 공간)' 조성사업 신청을 완료했다.

생태놀이터 '아이프락'은 도시 어린이가 생활권 주변에서 나무와 흙, 물, 풀, 동·식물과 같은 다양한 자연 생태 요소를 활용해 놀이와 생태체험, 휴식 등을 할 수 있는 자연생태 공간을 의미한다.

시는 오는 9월 환경부의 2017년 생태놀이터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비를 지원받아 내년 상반기 중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재 기자

전주시, 여성기금사업 7개 선정

500만원 한도내 지원

전주시는 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전주시 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전주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23일에 걸쳐 전주시 여성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여성기금 공모사업을 접수한 결과, 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등 8개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다.

성평등위원회에서는 공모에 신청된 사업에 대해 사업별로 타당성, 파급효과 등을 심도 있게 심의, 예산지원 할 대상사업을 선정 후 1개 사업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액을 결정했다.

이번에 심의에서 선정된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은 ▲청소년을 위한 양성

평등이야기(효자청소년문화의집) ▲무대 위에 꽃봉오리피우다(우아문화의집) ▲여성의 사회참여로 변화하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전주시여성단체협의회) ▲여성들의 유쾌한 상상과 전환 에코스타일(전북여성단체연합) ▲여성농업인 원예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한국여성농업인전북연합회) ▲20대총선평가와 여성정치참여 발전방안(전북여성정치발전센터) ▲아빠랑, 엄마랑, 아가랑 함께하는 예비 맘교실사업(전주YWCA)으로 7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원이 결정된 7개단체는 예산규모에 맞춰 사업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 후 보조금을 신청하면 4월부터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김영재기자

군산선관위,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총선과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6일 전주지방검찰청군산지청에 고발했다.

군산시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는 000당 후보자 B씨에 대해 "경쟁력이 낮다고 두 번이나 퇴짜 맞은 000 후보 전략공천을 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관내 주요 언론사에 공표하

고 성명서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 등 총 5만 8,500여명에게 전송한 혐의다.

도선관위는 선거일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보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인터넷 모니터링 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특별취재반

주간(주말), 아간면접특강
스피치 · 시낭송 · 면접 · 웃음치료 · 매직(마술)

◎ CEO, 2% 부족함이 있다면 귀하게 날개를 달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택(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달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달다!

〈강의특징〉
① 40년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강의
② 저명한 교육비로 주 1회 교육
③ 각종 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3회 국무총리상 2회 배출)
④ 각 분야 전문 강사가 지도함
⑤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김양목 전담교수 소개〉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면접) 전담교수
· 면접지도 권위자 호 강사
· 한국농번인협회 전북 회장
· 한국스피치&리더십개발 대표
· 스피치&리더십 경력 40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 '3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말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유치부,초등부,중,고등부,대학일반부, 면접지도,개인지도,주말반

(사)한국농번인협회, (사)한국농번단체총연합회 부설
한국스피치 & 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 & 면접 아카데미

위치: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번지(시청옆 대우빌딩 건너편 5층)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